

광주 보건증 발급 ‘어물쩍 검사’ 만연

‘셀프 항문검사’ 면봉에 물만 묻혀 제출해도 정상 판정 구청 보건소 알면서도 묵인...구멍 뚫린 광주시 보건행정 지난해 10만여건 검사했지만 수인성 질환 발견은 ‘0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스템이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광주일보 7월 10일자 6면>는 지적과 관련, 각종 ‘편법검사’ 기법이 만연하면서 검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부 검사 대상자들이 ‘셀프 항문 검사’에 거부감을 느껴 항문 삽입 후 제출해야 하는 ‘튜브 면봉’에 물만 묻혀 뒤 제출하고 있는데도 ‘통과 판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시, 각 구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5개 보건소에서 진행된 10만여건(추정)에 이르는 보건증 발급 관련 ‘항문면봉’ 검사에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 기타 수인성 질환이 단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광주시와 일선 보건소 등에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통과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데 있다.

또 검사결과 의심사례도 없어 광주시환경보건연구원에 2차 검진을 의뢰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악 경제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종사자만 검사과정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감수하는 한편, 시간낭비, 검사비 부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는 검사대상자인 모든 음식점 종사자들이 건강한 몸 상

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검사 시스템 자체의 허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부 검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튜브면봉’을 항문에 넣지 않고 화장실 내 수도물만 묻혀 제출해도 합격판정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적인 검사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어서다.

‘부실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광주시의 1군 법정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지역 일선 구청과 보건소에서도 피검자들의 ‘편법 검사’ 방식을 알고 있지만, ‘균 검출 여부만을 확인하면 된다’는 지침에 따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대상자들이 자신의 검사일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사에 나설 경우 질병 유무를 발견할 확률도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1년 기준으로 단 한차례만 검사를 한다

는 점에서, 현 검사시스템으로는 음식점 종사자의 위생 여부를 관리·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보건증 발급 검사시스템의 무용론에 힘을 실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수도물을 묻혀 제출하는 사례를 파악은 하고 있지만, ‘항문면봉’ 검사는 장티푸스 검출 등이 검사 이유이기 때문에 (수도물을 사용해도) 이들 균만 검출되지 않으면 정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합영기자 young@kwangju.co.kr



선체조사위 신규 임용자 합동 참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이 10일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싼 낙지 욕심에...

여수해경, 100마리 훔쳐 먹은 2명 검거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보성 한 선착장에서 낙지 100마리를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와 B(25)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6일 새벽 1시40분께 보성군 득량면 선착장에서 어선 계류용 바지에 몰래 들어가 그물에 넣어 바닷물 속에 산 채로 보관해 둔 시가 40만원 상당 낙지 100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들은 전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낚시를 하다 어민들이

낙지를 보관하는 모습을 보고 야간을 이용해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서 용의자들은 먹고 싶어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낙지는 본인들이 먹거나 주변에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선착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바탕으로 용의자들이 타고 온 승용차 등을 확인, 지난 7일께 이들을 검거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극심한 가뭄 탓에...

충남 농민 전복까지 내려와 양수기 40여대 ‘슬쩍’

충남지역 농민이 극심한 가뭄 탓에 전복에까지 내려와 농업용 양수기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은 10일 눈에 설치한 양수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6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충남 서산, 논산 일대 눈을 돌며 총 24회에 걸쳐 양수기 40여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충남 서산에서 농사를 짓는 김씨는 올해 가뭄이 이어져

자신의 눈에 댄 물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수기를 도난당했다는 농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눈에 댄 물이 부족해서 양수기를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농장에서 훔친 양수기 40여대를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산단 저장고 화재...제품 30t 손실

10일 새벽 5시30분께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PP)을 제조하는 여수시 중흥동 L공장 저장고(사일로, 높이 29m·지름 6m)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사일로 일부가 파손되고 보관하고 있던 제품 20t 중 30t이 소실돼 5000만원 상당 추정 피해액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근무자 6명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근무자

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공장 자체 소방대가 나서 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관계자는 “깨진 유리창 조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폭발은 아니고 화재로 보인다”며 “열기 때문에 사일로가 수축하며 일부 부분이 파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300억대 불량레미콘 납품업체 대표·임원 구속기소

전남 건설현장 2500여곳서 사용...후폭풍 예고

대대적 정밀 안전진단 나서

300억원대 불량레미콘을 납품해 온 레미콘 제조업체대표와 임원(광주일보 6월 21일자 6면)이 결국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불량레미콘을 납품받아 공사를 한 순천시내 일부 아파트와 건설현장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 그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규격미달 레미콘을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남의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장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모(43)씨와 규격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48)씨 등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

미콘을 제조·판매해 30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성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조작해 150여 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레미콘은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전남지역 아파트 8곳 등 모두 2500여곳의 건설현장에 쓰였다.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발주한 하천정비·도로 보수·마을 회관 공사 등 주택·상가 공사에도 불량레미콘이 납품된 것으

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최근 불량레미콘을 공급받은 일부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할 것을 요청했다. 순천 신대지구 건축허가 승인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양경제청은 아파트 건설현장 3곳 가운데 1곳에서 일부 불량레미콘이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5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로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시공 중인 현장에서 불량레미콘이 사용된 곳을 중심으로 레미콘 강도를 측정해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으면 보강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급 매”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케이볼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